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 (AA-이상),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A2-이상)(유동화포함), 양도성예금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추가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듀레이션을 0.3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채권,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672억 원

펀드유형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설정일

(운용펀드 : 2025년 01월 14일)

- 클래스 A : 2025년 05월 02일
- 클래스 A-E : 2025년 05월 02일
- 클래스 C : 2025년 04월 03일
- 클래스 C-E : 2025년 04월 08일
- 클래스 C-F : 2025년 01월 14일

벤치마크 Call 100%

신탁업자 우리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2영업일	2영업일
17시 경과후	3영업일	3영업일

투자위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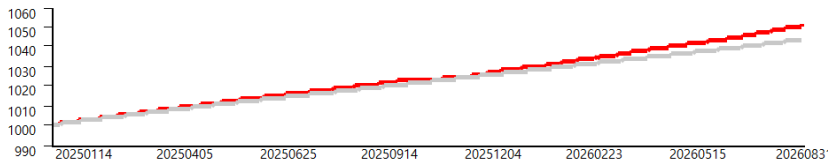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34%	0.92%	1.75%	3.12%	-	-	-	5.06%
클래스 A	0.32%	0.87%	1.66%	2.94%	-	-	-	3.85%
클래스 A-E	0.00%	0.00%	0.00%	0.00%	-	-	-	0.00%
클래스 C	0.31%	0.82%	1.55%	2.72%	-	-	-	3.78%
클래스 C-E	0.32%	0.86%	1.63%	2.89%	-	-	-	3.98%
클래스 C-F	0.33%	0.89%	1.70%	3.03%	-	-	-	4.91%
벤치마크	0.24%	0.67%	1.31%	2.59%	-	-	-	4.36%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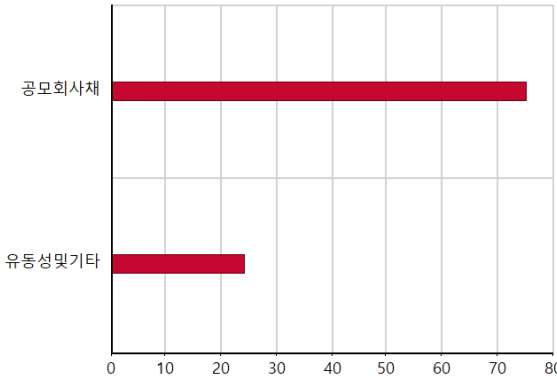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 운용펀드기준 — BM기준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8월말 기준)

<채권 종류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공모회사채	75.6
2	유동성및기타	24.4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8월말 기준 채권비중)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하나증권 20260831-1-89(단)	6.0	롯데케미칼 20260827-92-2(단)	5.9
케이비캐피탈574-1	6.0	다올투자증권 20260702-75-1(단)	3.0
대신에프앤아이 20260707-92-1(단)	6.0	다올투자증권 20260615-92-8(단)	3.0
디비크레딧제일차 20260709-91-2(단)	6.0	비에스에프플러스제일차 20260709-91-1(단)	3.0
컬티베이션제팔차 20260811-91-1(단)	5.9	비에케이플러스제일차 20260713-92-1(단)	3.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0.179% (판매 0.1%)
- 클래스 A-E : 총 연 0.129% (판매 0.05%)
- 클래스 C : 총 연 0.379% (판매 0.3%)
- 클래스 C-E : 총 연 0.229% (판매 0.15%)
- 클래스 C-F : 총 연 0.089% (판매 0.01%)

(공통사항)

운용 0.06%, 신탁 0.01%, 사무관리0.009%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0.3% 이내
- 클래스 A-E : 납입금액의 0.15%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8월 채권시장은 원/달러 환율 하락과 소비자물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8월 금통위 연속 인상 우려와 2027년 예산안에 따른 국채 공급 부담이 반영되며 완만한 약세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월초에는 SK하이닉스 ADR 상장으로 조달된 대규모 달러 자금의 국내 유입과 법인세 중간 예납을 앞둔 기업들의 환전 수요가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고, 7월 소비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며 석 달 만에 2%대로 복귀하면서 채권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근원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하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를 여전히 상회한 가운데, 유상대 전 부총재가 퇴임 기자회견에서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속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가 재차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8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00%로 25bp 인상하며 7월에 이어 연속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흐름과 성장 경로 등을 확인하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한편 정책심 미팅에서 위시 연준 의장은 현재 미국의 경제-금융 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2%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월 말에는 9월 초 발표 예정인 2027년 예산안에 대한 경계로 수급 부담이 가중되며 금리는 재차 상승하였습니다. 결국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8.0bp 상승한 3.840%, 10년 금리는 4.8bp 상승한 4.310%로 마감하였습니다. 동기간 펀드는 3개월 전단채 중심의 보수적인 운용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RP 매수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8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00%로 인상하며 7월에 이어 연속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다만 동결 소수의견이 등장하고 K-점도표에서 3.25%에 표가 집중되면서 최종금리 상단이 3.75%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극단적 경계는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금리상방 압력은 다소 누그러졌으나, 올해와 내년 성장률 및 근원물가 전망이 상향된 만큼 3.50%까지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지표 흐름에 따라 최종금리 기대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국고채 금리의 추세적인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이란 간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흐름이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확전에 따른 유가 상승은 국내 금리의 상방 요인으로, 협상 진전에 따른 유가 안정은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잭슨홀 미팅에서 위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 이후 9월 연준의 추가 인상 기대가 확대된 가운데, 향후 미국 고용-물가 지표에 따라 인상 기대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2027년 예산안에서 국고채 순증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총발행 규모는 222.8조원으로 올해 대비 소폭 축소에 그치며 시장 기대를 상회하였습니다. 추가 세수에도 미래대응기금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고채 발행 부담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수급 부담은 금리 하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국고채 금리는 Terminal Rate 3.25~3.50%를 반영해 나가는 가운데 유가, 통화정책, 수급 여건에 따라 박스권 내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단기시장은 8월말 기준 3개월 A1 CP의 경우 3.23%, 여전채 및 회사채 AA- 3개월의 경우 각각 3.38%, 3.41% 수준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경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가운데, 단기수급은 분기말에 가까울수록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공격적인 펀드 운용보다는 보수적인 펀드 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펀드의 듀레이션은 0.2년~0.4년 레인지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목 선정은 산업별 매력도에 기인하여 선별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